

광주시 '비리 복마전' 복지재단 특감

감사위, 6~12일 조직·예산·인사 등 운영 전반 감사 시의회도 지난달 본회의서 행정사무조사 의결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광주 복지재단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이어 광주시도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6~12일 조직, 예산, 인사, 계약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재단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도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특별 감사'인 행정 사무조사를 의결했다. 오는 14일 본회의를 거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 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 감사의 성격에 따른다.

복지재단은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무처장과 계약직 채용 규정 위반, 매점 불법 전대,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시의회는 행정 사무조사는 2006년 교육청 기차제 납품 비리, 2011년 교육청 인사·계약비리, 2012년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검교) 사기 사건에 이어 4번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 디자인에 '광주다움' 입힌다

시민 의견 반영 5개 시안 선정 선호도 조사 후 내년 1월 확정

건설 전반 공론을 거쳐 재추진하기로 결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제작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4일 "내년 1월까지 도시철도 2호선 차량 디자인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차량설계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호선 차량 디자인에 반영할 이미지, 색상, 형상 등에 대해 지난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온라인과 현장설문 병행 조사를 벌여 차량 내외부 디자인 시안 5개를 마련했다. 이들 시안은 각각 무등산의 정기를 바탕으로 한 광주의 기상, 미래지향의 전진감을 갖는 광주의 비전, 화합과 자유의 의미를 기리는 광주의 기억, 평화의 상징을 통한 광주의 마음, 문화예술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광주의 가치 등 '광주다움'을 입히는 디자인을 컨셉으로 했다.



디자인 1안 (주제: 무등산)



디자인 3안 (주제: 지역)

오는 13일까지 디자인 분야와 철도차량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어 시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이어 이들 시안에 대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벌여 내년 1월에 2호선 차량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시민선호도 조사는 지난 2월 실시했던 시민 의견 설문 조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디자인 기획부터 결정까

지 시민이 선호하고 공감하는 '광주다움'을 담은 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면 이를 반영한 차량설계를 하고 내년 11월부터 제작을 시작해 총 72량, 36편성을 2022년부터 단계별로 납품받는다. 시는 지난해 10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우진산전을 차량 제작업체로 선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용역은 83%까지, 2단계 구간 용역은 10%까지 진행된 상태다. 시는 조만간 1단계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도 실시해 용역·영향평가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서 사업을 승인하면 내년 6월까지 1단계 구간을 착공하기로 했다. 1단계 구간은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km이다. 2020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개통하는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안지구~윤남지구~시장을 연결하는 20km 구간이다. 1단계와 2단계가 연결돼 순환선으로 운영된다. 남광주역과 상무역이 환승역이다. 2021년 착공해 2025년 개통 예정인 3단계는 지선 개념으로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을 연결하는 4.84km 구간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빛물 관리 기법 도입 '저영향 개발' 적용

광주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구 석정동, 압촌동 일원의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는 4일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유지하는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93만2000㎡ 규모로 2021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빛물의 순환을 자연상

태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빛물관리 기법을 말한다. 정부는 물순환 선도도시로 광주를 포함한 5개 도시를 선정해 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계획 단계부터 물순환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신도시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LID기법을 도입했다. 한편 광주시는 상무지구 일원(2.1km)에 오는 2020년까지 총 295억 원(국비 207억 원, 시비 88억 원)이 투입해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행복등지' 사업 주거복지 최우수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18 주거복지 혁신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주거복지정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의 노력에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상은 전남도가 추진한 행복등지 사업이 모범사례로 꼽힌 결과다. 행복등지 사업은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남도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삼성전자 광

주사회공헌센터 등 민·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전남도건축사회 등의 재능기부로 주거약자 348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했다. 특히 단순 미관 개선이나 도배·장판 교체를 넘어 주택 구조·전기·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단열·누수·부엌·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태식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내년에는 11억 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해 총 25억 원의 예산으로 200여 가구를 지원해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中 저장성, 목포서 한·중포럼

자매결연 20주년 교류협력 론자와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전남도와 중국 저장성(浙江省)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4일 목포 상그리아 호텔에서 20번째 한·중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발전 방안'이다. 두 지역에서 대도시 집중화·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을, 천만화 저장성 도시농촌기획설계연구원 원림2소 부소장이 '3대 유산 연결지의 재생과 문화부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함평군 석양마을을 주권역 활성화' 사례와 '저장성 항저우 기차역 주변의 구도시 개발' 성공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이어 박종철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와 사례발표에 대해 두 지역 토

론자와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저장성에서 가오이(高屹) 인민정부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도시농촌기획설계 분야 전문가 등 6명이 방문했다. 포럼에 앞서 저장성 대표단은 성공사례 지역인 함평 주포권역 다목적센터와 오도캠핑장, 한옥민박촌 등 전남지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선경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국 저장성과의 우호교류 협력이 20년째 활발히 유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포럼을 통해 두 지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가꾸는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저장성과의 '한·중 포럼'은 1999년부터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 문화, 환경, 농업기술, 통상·투자, 관광교류 등 두 지역 현안을 주제로 매년 번갈아 열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목포시의원 제명 직위 이용 부당 청탁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4일 제8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양규 목포시의원을 제명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목포시와 인근 영암·무안·신안군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업 제안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부인 명의로 의료기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또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호 전남도의회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A도원의 불참으로 소명을 듣지 못함에 따라 심의를 11일로 연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웃 돕기 석류·유자청 팔아요" 광주 북구 청년간담회의 회원들이 4일 오전 북구청 1층 로비에서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직접 만든 석류, 유자청을 판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관하는 2018년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모집

- 1. 모집업체** 30개소(이내)
- 2. 신청자격**
 - 2017년, 2018년 친환경기술이전교육을 수료하고 양식을 창업한 자(업체)
 - 바이오플라크 방법으로 새우 등을 양식하고 있는 자(업체)
-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대상업체 선정 : 2018.12. 17 ~ 21(개별통지)
- 4.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5. 모니터링 대상 업체선정 및 모니터링 횟수**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개별 통지
 - 모니터링 횟수는 총 4회(이내)이며 지원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 6. 일정 및 방법**
 - 일정 : 2018. 12. ~ 2019. 3.
 - 방법 : 매월 1회 전문가 업체 방문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 1. 모집분야** 5개분야/ 250명
 - 양식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 생산기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 시설 컨설팅 지원
 - 행정 서비스 지원(인·허가사항)
 - 수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 최대 4회 신청 가능/중복신청 제한
- 2. 신청자격**
 - 예비양식창업자 및 창업희망자
 -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 2018년 친환경양식기술이전교육 수료자 등
- 3.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교육생선발 : 2018.12. 17 ~ 21(개별통지)
- 4. 제출서류 및 선발**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제출한 지원서를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 개별 통지
- 5. 컨설팅 품종** 10대 전라품종(해수부지정)
 - 품종 :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전복, 해조류, 능생어, 해삼, 넙치, 갯벌참굴, 참다랑어
- 6. 컨설팅 지원 방법 및 장소/일정**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분야별 컨설턴트를 지정 신청하면 1:1 맞춤형 컨설팅지원
 - 1인 최대 4개 분야(4회) 신청 가능
 - 컨설턴트 별 1회 이상 중복 신청 불가
 - 컨설팅 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컨설팅 일정 : 2018. 12. 24 ~ 2019. 2. 28